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Time Release Study for Trade Facilitation

송선욱(Seon-Uk Song)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무역원활화와 물품반출소요시간 | 참고문헌 |
| III. WCO TRS의 내용과 핵심성과지표(KPI) | ABSTRACT |
| IV.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 |

국문초록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 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무역원활화, 물품반출소요시간연구, 국경관리

I. 서론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무역업계는 적시공급체계를 도입하여 재고관리 비용 절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시배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제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경관리 행정당국에서도 무역원활화의 중요한 부분인 국제무역공급망상의 수출통관, 수입통관 절차상의 신속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무역업계의 국제물류 흐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 즉,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와 외국으로 반출, 그리고 수입의 경우 입항 후 수입업자에게로 반출되는 절차는 국제무역공급망에서 행정적 절차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류효율화 및 무역원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 및 물품 반출 단계의 신속화, 효율화, 원활화는 세관행정당국의 노력, 무역업계와 세관의 협력, 세관 이외의 관계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행정당국은 WCO Data Model, SAFE Framework 상의 single window 규정 등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세관행정 절차를 간소화,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와 같은 무역업계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세관 당국 이외에 국경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정 및 협력을 통한 무역원활화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CO는 1997년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ime Release Study : TRS)를 개발하였으며 2011년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판을 2011년 발표하였다. WCO TRS는 세관활동의 실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독특한 도구이며 방법이다. 세관활동은 국경에서의 무역원활화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TRS는 수입, 수출, 통과와 표준 절차에서 세관과 기타 강행적 집행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절차의 효율성 측정을 통해 그러한 활동의 개선분야를 발견하도록 하여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경관리 행정당국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와 물품반출소요시간의 관계, WCO TRS의 내용, 추진사례와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¹⁾

1)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외국 연구의 경우 Shingo Matsuda의 2012년 연구가 있으나 이는 TRS version 2에 대한 소개 내용이다. 또한 World Bank나 WCO에서는 TRS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TRS를 주제

이 같은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제시를 통해 무역업계의 수출입물류 흐름이 보다 원활화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국경통과에 대한 규제적 절차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무역원활화와 물품반출소요시간

1. 무역원활화 논의와 범위

1) 무역원활화 논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대해 WCO는 통과화물을 포함한 화물의 이동, 반출, 통관을 신속화하는 것으로²⁾ 이를 통해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WTO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무역절차는 국제무역에서 화물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 제시, 의사소통, 처리에 관련된 활동, 관행, 공적절차를 의미한다.³⁾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는 무역원활화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을 이동하는데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요구되는 관련된 정보의 흐름과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무역원활화 정의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사이의 거래비용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무역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은 공통이다. 무역원활화 프로그램은 거래가 예전보다 더 쉬워지고 빨라지고 보다 경제적이 되기 위해 무역절차의 간소화, 조화, 표준화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소화는 공적절차, 절차, 과정에 있어서 복제,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며 조화는 국가공적절차, 절차, 활동, 국제협약 서류, 표준, 관행의 체계적 조정이며 표준화는 관행, 절차, 서류, 정보를 위한 국제적으로 동의된 형식을 개발하는 과정이다.⁴⁾

로 한 연구는 현재 미미한 상태에 있다.

2)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version 2. 2011.

3) Andrew Grainger,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 FROM CONCEPTS TO IMPLEMENTATION, World Customs Journal, Volume 2, Number 1, 2008.4.

4) Butterfly, T 2003, "Trade facilitation in a global trade environment", in UNECE (Ed.) Trade facilitation: the challeng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Geneva.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가 1973년에 서명한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the Kyoto Convention)을 포함한 많은 수단들에 의해 이미 개발되었다. 교토협약은 무역환경변화에 맞추어 대폭 개정되어 2006년 2월 3일에 발효하였으며 현재 76개 체약국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은 실제적인 무역원활화 이익을 전달하면서 세수징수와 국경관리 목적을 다루는 실제적인 해결수단을 제공한다.⁵⁾

한편 WTO에서도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서 무역원활화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이 분야의 논의에서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한 탐사적이며 분석적인 작업이 착수되도록 하였다.⁶⁾ 수년의 탐사적 작업 후에 WTO 회원국은 정식으로 2004년 7월에 소위 “July package”의 부록 D에 담겨있는 양식을 근거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협상에서 무역원활화와 관세법규준수도 문제에서 세관과 적절한 기관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⁷⁾

무역거래 비용의 증가는 무역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며 소모적이므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2) 무역원활화의 범위

무역원활화는 무역절차를 간소화, 조화, 표준화, 현대화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전체 무역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UN/CEFACT와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무역원활화의 대상 범위를 무역절차, 세관과 규제기관, 일반 준비, 세관통제, 공식적인 문서작업, 보건과 안전, 재정보증, 환적을 포함한 수입, 수출, 통과에 적용가능한 공식적인 절차를 위한 조항, 항공, 해상, 복합운송을 포함한 운송과 운송장비에 관련된 조항, 사람의 이동에 관련된 조항, 위험화물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 대금지급 절차와 관련된 조항,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조항, 상업적 관행과 국제표준의 이용과 관련된 조항, 무역원활화의 법적 측면 등으로 하고 있다.⁸⁾

WCO의 GATT 관련 조항에 근거한 무역원활화 권고(Trade Facilitation Recommendations under GATT Articles V, VIII and X)에 따르면 제5조(Freedom of Transit)하에서 강행적 정상적인 규제적 신고 대신에 상업적 서류(즉, 송장과 운송서류)를 인수하고 탁송품을 확인하기 위

5) WCO, Putting trade facilitation into practice, a key WCO activity, WCO news N° 65, 2011. 6.

6) WTO,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1996.12.

7) Andrew Grainger, *ibid*, 2008.4, p.20.

8) UN/CEFACT & UNCTAD, Compendium of Trade Facilitation Recommendations, 2002.

한 간단하고 명확한 절차의 확립, 화물의 무차별성 보장, 국제협약의 이용과 규제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하에서는 규제적 요금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무역서류와 세관절차의 표준화, 간소화, 규제적 통제의 협조적 개입과 집중, 정부 무역절차의 간소화, 싱글윈도우 개념, 위험관리(R/M) 기술의 이용, 정보기술(IT)의 이용, 공통데이터 모델, 국경통관을 위한 시간 지침, 국제 관세협약의 준수 등이며 제10조(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하에서는 절차와 요구사항의 접근가능한 출판, 정보의 활동적인 준비, 진전을 위한 절차와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의제기와 재판절차, 규제적 기관들과 무역업자 사이의 MOU 사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는 무역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범주는 수출입 물품의 국경 통과에 관련된 일련의 공적절차의 간소화, 조화,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2. 무역원활화 수단과 물품반출소요 시간연구(TRS)

1) 무역원활화의 수단

무역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WTO, WCO, UN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경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무역원활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WCO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무역원활화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WCO 위험관리 개요(Risk Management Compendium)로, 이는 세관에서 위험관리 기법을 사용할 때 관련된 개념을 위한 기본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는 위험을 관리할 때 세관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국제세관당국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는 개념, 접근방법, 방법론, 이행 기술, 실제적인 위험관리에 필요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관리에 대한 직원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변화는 절차시간의 감소, 총체적 거래비용의 감소, 절차와 관리의 투명성 증가를 포함하여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국경절차를 위한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환경의 구축으로, 이는 다양한 국경통과 관련 규제적 기관들을 포함하여 국경자동화와 정보관리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

9) Andrew Grainger, *ibid*, 2008.4, p.23.

10) WCO, Putting trade facilitation into practice, a key WCO activity, WCO news N° 65, 2011. 6.

단으로서 세관당국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CO는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Compendium on How to build a Single Window)를 개발, 제시하였다.

셋째, WCO Data Model version 3을 개발하였다. 이는 업계와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싱글윈도우 구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싱글윈도우를 이행할 때 Data Model 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조화와 표준화의 절대적 필요는 현재 경험을 통해 얻는 중요한 교훈이다. 이는 무역원활화를 가져다주며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게 되며 무역업자에게 총체적인 간소화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WCO SAFE Framework의 일부로써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개념의 개발로, 이는 세관과 업계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권된 무역업자에게 절차의 간소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한 무역원활화 도구가 되고 있다.

다섯째, WCO TRS로, 이는 절차의 검토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세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수단이다. TRS를 이용함으로써 각 국가들은 화물의 국경통과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애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인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하므로 TRS는 세관 통관절차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와 무역원활화

물류비용이 낮은 국가로 경제적 이익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상황의 개선은 효과적인 무역 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한다. 효과적인 무역시스템은 가장 경제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배송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주는 물류비용 절감은 무역시스템의 효과적 개선, 특히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한 국경통과 화물의 반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많은 부분 달성된다.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는 TRS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TRS는 핵심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세관절차상의 장애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로서 역할하며 이렇게 확인된 장애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¹¹⁾

따라서 TRS는 무역원활화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현행 국경통과 절차의 개선을 통한 정부와 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한다.

11) Robert Ireland & Tadatsugu Matsudaira, Reform instruments, tools, and best practice approaches, Border Management Modernization, World Bank, 2011.

Ⅲ. WCO TRS의 내용과 핵심성과지표(KPI)

1. WCO TRS 내용

1) TRS의 유용성과 구성 내용

(1) TRS의 개발

WCO가 개발한 TRS는 화물통관과 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세관활동을 포함한 국경절차의 실제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독특한 방법이며 도구이다.¹²⁾ 여기서 화물의 반출(release of goods)은 개정교도협약에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물품을 당사자의 처분상태에 놓이도록 허가하는 관세당국의 행위”를 의미하며 통관(clearance)은 “물품의 내수용 반입, 수출 또는 다른 세관절차로 이관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관절차의 완성”을 의미한다.¹³⁾

TRS 가이드 개발의 시초는 1994년 WCO 상임기술위원회(Permanent Technical Committee ; PTC)가 TRS를 착수하기 원하는 각국 행정부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일본, 미국에 의해 착수된 유사한 구상들에 기초한 ‘화물반출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연구(안내서handbook)’를 채택한 것에 두고 있다. 1994년과 1997년 사이에 소수의 회원국들이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안내서와 연구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서 1997년 PTC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PTC는 화물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 즉, ‘TRS 가이드’를 채택하고 2001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 후 WCO 회원국은 최초 TRS 가이드를 업데이트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나누고 2010년 3월 작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TRS 가이드는 WCO TRS 가이드 version 2로써 2011년 10월에 업데이트 되었다.

TRS 가이드 version 2는 TRS의 새로운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 최초 version과 동일한 기초방법론을 유지하고 있다. 세관과 업계의 파트너십, 세관간 협력, 협력적 국경관리의 맥락에서 TRS의 사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험 있는 WCO 회원국에 의해 확인된 도전들과 기회들이 몇몇 국가들의 국가 사례와 함께 가이드에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적, 지역적 환경 하에서의 TRS 적용과 수출 TRS의 적용이 version 2에 더해 졌다.¹⁴⁾

12) <http://www.oecd.org/aidfortrade/47799918.pdf>

13)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Chapter 2 E5./9, E24./F20.

14)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32-35., version 2. 2011.

(2) TRS의 개념과 유용성

WCO TRS는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가입자들에 의해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유용한 이행 측정 도구로써 인식되어 왔으며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TRS를 설명하고 있다.¹⁵⁾

World Bank에 따르면 TRS는 관세와 무역원활화 프로젝트의 구성요소로서, 화물의 도착과 반출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고 관련된 기관과 절차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그 연구로부터 획득된 기준자료는 세관통관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는 TRS를 세관통관 절차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출 과정에서 각 정지 지점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평가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정책, 절차 개선을 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단 도구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ADB(Asian Development Bank)에서는 TRS는 개입을 알리기 위한 타당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 그리고 측정 가능한 이행 개선과 기초 셋팅에 대한 감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 해결책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주 관세국경관리부(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는 TRS를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국경기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WCO에 의해 고안되고 서명된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가진 WCO TRS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국경 절차와 물류에 있어서 추가적인 개선의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며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관당국, 다른 정부기관, 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세관행정당국에게는 TRS 착수를 통해 병목을 확인하고 지연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하고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하는 활동을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TRS를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착수한 행정당국은 이들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개선과 개정 조치의 이행으로 인해 반출에 걸린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무역업계에게는 TRS가 세관통관에서 지연과 관련되는 무역업계의 관심사를 정확히 집어내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지연과 관련된 무역업계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무역업계가 적시재고(Just-in-time Inventory) 전략과 생산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화물의 국경 통과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새롭게 도입되고 수정된 기법, 절차, 기술과 인프라 또는 행정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갖는다.

15) Shingo Matsuda, The Time Release Study as a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for a supply chain and an international corridor, World Customs Journal Vol.6, No. 1., 2012.3.

셋째, 무역원활화 이행 측정 기준치를 확립하는 수단이 된다. 즉, TRS를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무역원활화 이행 기준을 확립하여 향후 정기적인 TRS를 통한 결과와 비교하여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벤치 마킹 도구로써 국가의 대략적 비교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한 국가의 TRS 결과를 다른 국가의 TRS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를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벤치마킹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는다.¹⁶⁾

다섯째, WCO TRS를 이행하도록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이 후진국과 개도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WCO TRS는 구체적으로 WCO SAFE Framework와 WTO의 다자간 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DA)에서도 그 이용을 언급하고 있다. 즉, WCO SAFE Framework에서는 세관당국은 SAFE Framework 표준 준수의 영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WCO TRS가 적절한 도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또한 도하 개발 아젠다(DDA)의 일부로써 현재 WTO내의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WTO TRS가 참조되고 있다. 몇몇 WTO 회원국은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 ‘화물의 반출시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의 현재 통합된 협상안은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WCO TRS를 특별참조로 “평균 반출시간과 통관시간의 확립과 발표”조항에 포함하고 있다.¹⁸⁾

(3) TRS의 구성내용

TRS 가이드 version 2는 6개의 장과 8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TRS의 맥락을 제공하는 “도입과 맥락”으로, 거기에는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에서 세관과 WCO의 역할, 무역원활화를 위한 TRS 이행을 지지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이행 측정 도구로서의 TRS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은 TRS의 역사적 배경과 TRS 가이드 version 2의 후속적 발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은 “일반적 목표와 범위”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가능한 특별한 이용들”로서 TRS의 여러 가지 특별한 활용 방법에 대해 나타내준다. 제5장은 “TRS의 윤곽”으로 TRS를 착수하는 단계적 접근을 다룬다. 즉, 체계적인 방식으로 TRS를 이행할 수 있도록 TRS의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 데이터 수집과 기록 단계, 데이터 분석과 결론 단계로 이행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도전과 기회”로

16)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32-35., version 2. 2011.

17) WCO SAFE FRAMEWORK, 3.2.

18) WTO DDA Negotiations, Short guide to Trade Facilitation proposals, Revision September 2012. (trade.ec.europa.eu/doclib/docs/2012/november/tradoc_150103.pdf)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거기에는 TRS를 이행하는 동안 WCO 회원국에 의해 부딪혔던 도전과 기회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며 데이터 청렴도, 업계 데이터로의 접근, 이행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제안을 담고 있다.

TRS 가이드의 8개 부록은 TRS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 참고를 제공한다. 부록 1은 활동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활동그룹의 일반적인 기능과 책임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TRS에 더하여 새로운 가이드에는 국제적(지역적) TRS의 이행을 포함한다. 부록 2는 처음 TRS를 이행하는 자들을 위해 운송 형태에 따른 간단한 조사 질문서 모델을 포함한다. 부록 3은 세분화된 TRS를 위한 샘플 양식, 정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통합된 예시리스트를 제공한다. 부록 4는 WCO TRS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기초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첨부되었다. 부록 5와 6은 각각 최종 보고서 형식과 언론 공개 형식을 담고 있다. 부록 7은 수출을 위한 WCO TRS의 적용을 묘사한다. 부록 8은 최근의 TRS 사례 리스트를 포함한다. 호주, 카메룬, 일본, 한국, 뉴질랜드, 세르비아, 우간다의 경험이 WCO 회원국의 국가 실행 범주에 포함되어있다.

2) 추진 사례

(1) 호주와 뉴질랜드 세관 사이의 Trans-Tasman TRS

각 국가들은 한 국가내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TRS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세관에 의한 공동노력으로써 2010년에 이행된 Trans-Tasman TRS는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위한 상호 협정하에서 두 국가 사이의 무역 간소화 즉, 무역원활화의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되었다.

양 세관당국의 세관원들은 핵심 통관 업무와 목표 화물의 기본 정의를 포함한 TRS의 범위를 확립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함께 작업하였으며 기타 다른 국경기관들은 그들의 통관 시간을 검증하기 위해 관여하였다. 필요한 보충적인 자료들은 업계로부터 획득하였다.

이 TRS의 범위는 양쪽 방향으로 무역에 포함된 4가지 국경절차를 포함한다. 즉, 뉴질랜드로의 수출되는 화물의 호주 수출 통관,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뉴질랜드 수입 통관, 호주로 수출되는 화물의 뉴질랜드 수출통관, 뉴질랜드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호주 수입 통관을 포함한다. Trans-Tasman TRS 절차는 원산지 국에서 수출시 세관 통제를 위해 화물이 배송될 때 시작되고 목적국에서 국내 사용을 위해 화물이 배송을 위해 이용가능할 때 끝난다.

최종보고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화물의 물리적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양 방향으로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즉, 원산지국의 수출 장소에서 목적국의 항구의 양륙장소까지 9일내에 평균배송시간을 가진다. 또한 화물 터미널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전에 국내 사용을 위해 화물의 배송을 위한 국경절차가 완료된 후 평균 2일 이상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는 화물터미널에 수입화물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공동 TRS는 물품반출 소요시간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두 국가 사이의 이행의 차이점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국경 절차 간소화에 대한 수많은 기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전 화물 보고, 중소기업에 위한 정보, 법규적 조화, 데이터 조화, 위험관리 등이 개선을 위한 잠재적 영역으로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TRS가 공급망 효율성과 두 국가 사이의 국경절차 통합의 관점에서 이행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세관, 기타 다른 국경관리기관, 업계, 정책입안자들에게 국경절차의 통합과 공급망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¹⁹⁾

(2) 뉴질랜드 수출 T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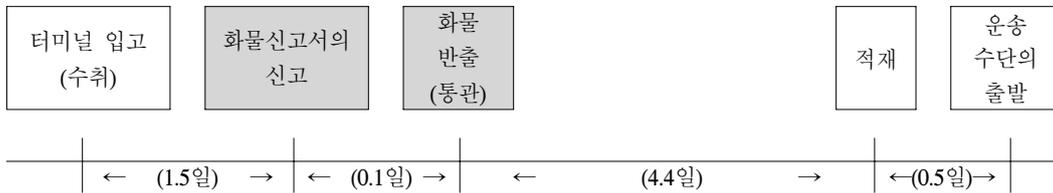
대부분의 TRS는 수입통관절차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관세청(New Zealand Customs Service ; NZCS)은 WCO TRS 가이드에 기초한 수출 부분에서 TRS를 수행한 첫 번째 WCO 회원국 가운데 하나이다. NZCS는 모든 수출화물은 적재 전에 통관될 것을 요구한다. 화물이 계획된 선박에 적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늦어도 화물 적재 전 48시간 내에 수출신고가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자는 또한 그 시간 후에 수출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나 NZCS는 그 화물이 계획대로 적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제출되기 전에 항구나 터미널로 배송될 수 있다. 이 같은 수출절차에 기초하여 NZCS는 TRS를 착수하였다. 핵심 업무와 이들의 평균 시간은 <그림 1>과 같다.

NZCS가 세관 통관절차를 위해 평균적으로 0.1일을 사용하는 동안 게이트에 들어와서 선박이 출발하기까지 평균 총 6.5일이 소요되었다. 항구회사와 선박회사가 적재 전에 화물 배송을 위한 마감시간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결과는 항구 또는 터미널에서 수출화물을 보관하는 동안 뉴질랜드 내의 사업 관행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수출원활화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한편 SES(Security Exports Scheme)²⁰⁾ 수출업자를 위한 세관절차와 통관은 비 SES 수출업자와 비교될 수 있다. SES 수출업자는 그들의 수출신고와 화물이 보다 빨리 통관되고 비 SES와 비교하여 세관에 의한 더 낮은 개입으로 명확한 혜택을 갖는다.²¹⁾

19)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Appendix 8. version 2. 2011.

20) 뉴질랜드의 AEO 프로그램



〈그림 1〉 수출에서 각 업무의 평균 시간(컨테이너화 된 해상화물)

2. TRS의 핵심성과지표(KPI)와 다른 측정도구

1) 핵심성과지표(KPI)

WCO TRS 이외에 몇 가지 접근방식들이 무역원활화의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Doing business survey, Logistics Performance Indicator(LPI)²²⁾, 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in Southeast Europe Program(TTFSE) 등이 있다.

이러한 성과 측정 도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 KPI)는 주로 시간, 비용, 절차로 구성된다.

시간 요소는 전체 무역거래를 위해 필요한 시간, 서류와 관련된 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 국경에서의 통관 시간, 세관을 포함한 국경기관에 의한 물리적인 개입에 따른 시간이 포함된다. 비용 요소는 사업을 위한 총 무역 비용, 수입, 수출 및/또는 통관을 위한 총 비용, 항구, 터미널, 공항 또는 육지 국경통과에서 소요되는 총비용, 관세 및 내국세 총비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절차 요소는 무역거래를 유지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총 서류 수, 각 무역거래를 위해 요구되는 총 서류 수, 국경에서 각 통관을 위해 필요한 총 서류 수, 특별한 거래를 위한 국경기관의 총 서류 수가 포함된다.

서류와 관련된 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세관을 포함한 국경기관에 의한 물리적인 개입에 따른 시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WCO TRS의 주요 핵심성과지표는 국경에서의 통관 시간이다. WCO TRS 방법론은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국경(공항, 항구 또는 국경통과지역)에서 운송수단의 도착부터 통관대리인 또는 수입업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화물을 반출하는 시간에 적용된다.²³⁾

21)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Appendix 8. version 2. 2011.

22)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의 6가지 핵심 분야

① 세관을 포함한 국경관리 기관들에 의한 통관절차(속도, 간소화, 공적절차의 예측가능성)의 효율성, ② 인프라(항구, 철도, 도로, 정보기술)와 관련된 무역과 운송의 질, ③ 경쟁력있는 가격의 선적품을 예약하는 것의 용이성, ④ 물류서비스(운송업자와 관세사)의 경쟁력과 질, ⑤ 수탁품에 대한 추적 능력, ⑥ 계획되거나 기대되는 배송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선적품의 적시성(<http://www1.worldbank.org/PREM/LPI/tradesurvey/mode1a.asp>)

2) World Bank Doing Business²⁴⁾에 근거한 국가별 통관소요시간 비교

IBRD/World Bank가 제시한 Doing Business 2013에서는 국경 통과 무역에 대해서 비용, 소요시간, 서류제출건수 등을 지표로 삼아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화물통관과 절차의 비효율성은 개도국의 무역업자들에게 경쟁열위에 처하게 만든다. 반면 무역원활화의 개선은 개도국에게 많은 이익을 향유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있는 무역업자들을 위해 국경통과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해당 국가의 국경통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국경절차, 부적합한 인프라, 신뢰할 만한 물류서비스의 결핍은 종종 고 거래비용과 장기간의 지연을 의미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기업의 경쟁은 더 약화되고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은 더 어렵게 된다.

<표 1>은 통관 효율성 분야에서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총 185개국 중 수출입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제출건수, 소요시간, 비용에 대한 평균으로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²⁵⁾ 통관효율성 상위국가는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들이 최상위에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 덴마크, 아랍 에미레이트, 핀란드 순으로 나타나 있다.

Doing Business가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시간, 비용, 서류²⁶⁾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요소로서 여기에는 해상운송에 의해 표준화된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시간이 측정된다. 화물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위한 모든 공적 절차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기록되나 해상운송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1> 통관 효율성 상위 국가와 열위 국가

순위	상위 국가	열위 국가	순위
1	싱가포르	니제르(Niger)	176
2	홍콩	부룬디(Burundi)	177
3	한국	아프카니스탄(Afghanistan)	178
4	덴마크	이라크(Iraq)	179

23) Shingo Matsuda, *ibid*, 2012.3.

24) World Bank가 2003년부터 조사 대상 국가의 효과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 분석하여 발간한 것으로 최초 시작당시는 13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10번째 판인 Doing Business 2013에서는 18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개업환경, 건축허가, 전자화, 재산권 등록, 신용획득,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국경통과 거래, 강행적 계약, 지급불능의 해결 등의 분야에서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평가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5) 수출하는 물품은 창고에서 컨테이너로 화물이 포장되는 것부터 출발장에서 출발할 때까지의 절차이다. 수입화물은 수입항구에 선박이 도착할 때부터 창고에서 화물이 배송될 때까지의 절차이다. 지불은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용장의 발행이나 통지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 비용, 서류들은 고려되었다.

26) 국경통과 무역의 효율성과 관련된 순위에서 시간, 비용, 서류의 측정 비중은 각각 33.3%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순위	우위 국가	열위 국가	순위
5	아랍 에미레이트	체드(Chad)	180
6	핀란드	콩고 공화국(Congo, Rep)	181
7	에스토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182
8	스웨덴	카자흐스탄(Kazakhstan)	183
9	파나마	타지키스탄(Tajikistan)	184
10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185

자료 : IBRD/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2013

둘째, 비용 요소로 비용은 미 달러화로 20피트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측정한다.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요금이 고려된다. 이들은 서류 비용, 세관통관과 검역을 위한 행정비용, 관세사 비용, 항구 관련 비용, 내륙운송 비용을 포함한다. 이 비용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나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공식적인 비용만이 기록된다.

셋째, 서류 요소로서 여기에는 국경을 통과하여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무역업자에 의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기록된다. 관련기관(정부부처, 세관, 항만당국 그리고 기타 다른 관리기관을 포함)에 의해 통관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고려되며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의 발행이나 획득을 위해 은행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또한 고려된다.

〈표 2〉 Doing Business의 국경통과 무역에 대한 성과 지표

서류(개수)	시간(일)	비용(20' 컨테이너 당 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서류 세관통관 서류 항만과 터미널 처리 서류 운송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서류를 획득, 보관 제출 시간 내륙 운송과 처리 시간 세관통관과 검역 시간 항만과 터미널 처리 시간 해상운송시간은 불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서류비용 내륙운송비와 처리비용 세관 통관과 검역 비용 항만과 터미널 처리 비용 공식적 비용만 포함, 뇌물 등 불포함

IV.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1. 지속적인 무역원활화 제고

WCO TRS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무역관행의 변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개선된 무역원활화가 달성되도록 수출입 물류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TRS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 작업을 통해 무역업계에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며 고객 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당국 및 국경 관리 당국의 관리행정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호주를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지속적으로 TRS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반출시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무역원활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전산화, 세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06에 의하면 수출과 수입의 소요시간은 각각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oing Business 2013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소요시간이 각각 7일로 대폭 감소하였다.²⁷⁾ 이 기간 수출입실적은 2004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각각 수출 218%, 수입 233.6% 증가하였다.²⁸⁾

<표 3> 통관 효율성 분야 한국과 세계 1위 국가 비교

한국	기준		세계 1위 국가	
3위	통관 효율성		싱가포르	1위
3개	서류제출건수	수출	프랑스	2개
7일	소요시간		덴마크	5일
US\$665	비용		말레이시아	US\$435
3개	서류제출건수	수입	프랑스	2개
7일	소요시간		싱가포르	4일
US\$695	비용		말레이시아	US\$420

자료 : IBRD/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2013.

27) Doing Business 2006에서 측정한 자료의 기준일은 2005년 1월 기준이며 Doing Business 2013에 측정한 자료의 기준일은 2011년 6월에서 2012년 6월 사이의 기간에 측정된 자료이다.

28) 2004년도 수출 약2,538억불, 수입 2,245억불, 2011년도 수출 약 5,552억불, 수입 약 5,244억불 기록하였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참고, <http://stat.kita.net>)

한국 관세청은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제공 시스템(Client-oriente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CLIS)’을 통해 화물 반출시간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물류의 평균 처리기간 및 표준편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처리 절차의 단축으로 인해 무역업체에게 재고보유의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 직접적 효과 외에 기업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TRS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수출 TRS 활용을 통한 수출화물절차 신속화

WCO TRS는 수출, 수입, 통과 화물의 물품반출소요시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관리에 집중하여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제공 시스템(CLIS)이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²⁹⁾을 통해 주로 수입화물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여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즉, CLIS는 물류참여자가 모든 수입화물의 위치 및 처리상황, 각 수입 건의 처리기간과 일정기간 동안의 업체별 평균 처리기간 및 표준편차, 수입예상 화물의 처리기간 사전예측 및 희망하는 물류처리기간 목표관리 등 물류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자기의 능력이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수입화물에 대한 지속적인 TRS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출 화물 물류절차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역원활화 문제는 단순히 수입절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출화물 물류 절차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무역업체의 고객에 대한 신속배송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에 또한 기여하게 된다.

앞의 뉴질랜드 수출 TRS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관의 수출통관절차 자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으나 당해 수출화물이 화물터미널에 입고된 후 선적되어 출항할 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출무역원활화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 TRS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수출화물 물류 절차상의 지연과 지체의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는지 확인하여 수출화물 물류원활화에도 심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9)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는 물론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기에 통합하여 원스탑 처리가 가능한 관세청의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이다.

3. 주요 거래상대국과의 협력적 국경관리 추구

2010년 호주와 뉴질랜드 세관 사이에 이루어진 Trans-Tasman TRS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TRS가 한 국가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역 상대국과의 공동 TRS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국가간 공동 TRS를 통해 양 국가의 국경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잠재적 개선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국가 사이의 국경 절차의 통합을 통한 국경 절차 간소화의 기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 국가의 수출은 상대방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경통과 화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TRS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 그리고 2, 3위 국가인 일본, 미국과의 협력적 국경관리 및 물품반출시간 단축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TRS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역대상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공동 TRS가 이루어진다면 무역업계의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4. 후진국 TRS 지원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WCO TRS는 선진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도국과 후진국에서도 이루어져서 국제공급망 전체의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은 선진국간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이나 후진국과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쪽 국가가 국경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있더라도 거래 상대국가의 국경절차가 비효율적이 된다면 전체 교역 즉, 국제공급망 전체의 비효율로 이어져 무역원활화가 진전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표 1>에서 통관절차 비효율성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의 국가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 국가들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관효율성이 열악한 국가에 대해 선진국의 TRS 지원을 통해 국경절차가 간소화되어 이를 통해 국제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글로벌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무역 8위국의 위상 및 초일류세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저개발국, 후진국 정부의 무역원활화, 특히 통관조치 개선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며 확대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 몽골, 과테말라, 에콰도르, 네팔, 탄자니아,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ADB, KOICA, 아프리카투자환경개선

기금(ICF)이나 해당국의 재원을 통해 컨설팅, 전자통관, 싱글윈도우, 위험·화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원, 전수해 오고 있다.³⁰⁾

한국 관세청은 세계 최일류 관세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 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CO TRS가 향후 WTO 다자간 협상의 무역원활화 표준규정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에서도 주요 규범으로 채택되어 무역원활화를 통한 국경관리 행정당국의 업무 효율화와 무역업계의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0) 관세청, 보도자료 2013.11.15.

참 고 문 헌

- 송선욱, “국제공급망 보안을 위한 수입세관으로의 송화인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1.8.
- 관세청, 보도자료 2013.11.15.
- 관세청, 제191/192차 WCO 상임기술위원회 참석결과 보고, 2011.4.
- Andrew Grainger,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 FROM CONCEPTS TO IMPLEMENTATION,” *World Customs Journal* Vol 2, No 1, 2008.4.
- Butterly, T 2003, Trade facilitation in a global trade environment, in UNECE (Ed.) Trade facilitation: the challeng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Geneva.
- IBRD/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2013.
- IBRD/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6, 2006.
- Robert Ireland & Tadatsugu Matsudaira, Reform instruments, tools, and best practice approaches, Border Management Modernization, World Bank, 2011.
- UN/CEFACT & UNCTAD, Compendium of Trade Facilitation Recommendations, 2002.
- WCO, Putting trade facilitation into practice, a key WCO activity, WCO news N° 65, 2011. 6.
- Shingo Matsuda, “The Time Release Study as a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for a supply chain and an international corridor,” *World Customs Journal* Vol.6, No.1, 2012.3.
-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Chapter 2 E5./9, E24./F20.
- WCO, WCO SAFE FRAMEWORK, 2006.
- WCO, Guide to measurement the time required for the release of goods, version 2. 2011.
- WTO DDA Negotiations, Short guide to Trade Facilitation proposals, Revision September 2012.
- WTO,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1996.12.
- <http://www1.worldbank.org/PREM/LPI/tradesurvey/mode1a.asp>
- <http://www.oecd.org/aidfortrade/47799918.pdf>
- <http://www.customs.go.kr>
- <http://stat.kita.net>
- trade.ec.europa.eu/doclib/docs/2012/november/tradoc_150103.pdf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Time Release Study for Trade Facilitation

Seon-Uk Song*

The WCO Time Release Study (TRS) is a unique tool and method for measur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Customs activities. The ultimate aim of TRS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 being measured.

To be more specific, TRS is used for identifying bottleneck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or constraints affecting Customs release, assessing newly introduced and modified techniques, procedures,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changes, establishing baseline trade facilit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rade facilitation improvements and estimating the country's approximate comparative position as a benchmark tool.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s of TRS for trade facilitation in Korea Customs Services are as follows ;

Firstly,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s to identify bottlenecks in border-related procedures and improve their procedures for continuous and more improved trade facili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optimize and simplify export-related procedures using the TRS in exportation for efficiency of total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with main trading partn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o support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trade procedures.

Key Words : Time Release Study, Trade Facilitation, Border Control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Commerce, Baekseok University